

'성폭행' 규탄 계기 여성문제 확산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9

부산여성회

8일 첫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부산여성회의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젊은 여성들의 진지한 토론과 건강한 웃음, 그리고 즐거운 노래소리로 가득하다.

1백50명 회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무직여성들이 저녁 7시 쯤에야 퇴근해 모일 수 있는 까닭에 저녁을 거르기 일쑤지만 어느 누구도 빨리 끝내자고 제촉하지 않는다.

사무국장 구수경(29)씨는 부산여성회가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 1~2년 뒤늦은 지난해 3월에야 출발했지만 "이 지역 최초의 민주여성운동단체로서 활동역량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이런 자부심은 일년 동안의 준비모임을 통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정하고 출발한' 여성회의 창립배경에서 비롯된다.

특히 88년 피해자의 고소로 여론화된 이래 이 지역 여성인권운동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장제혁 성형외과 원장의 간호사 성폭행사건'은 여성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 중요한 촉매제였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 유지인 60대 병원장이 20대 초반의 간호사를 성폭행해 피해자가 고통에 시달리다 폐인지경에 이른 지 2년 만에 고소하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엔 고소내용을 인정했던 가해자가 막강한 금력과 배경(검찰 의료자문위원)을 동원

했지만 검찰이 즉시 항소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창립과 함께 공대위의 임무를 넘겨받은 여성회는 두 차례의 거리홍보 등 가해자 규탄운동을 주도하던 중 손정연(38) 공동회장이 또 다시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남성가해자는 버젓이 진료활동을 계속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교육 학부모회 부산지부' 결성에 앞장서 대표적인 지역민주단체로 키워냈던 저력을 바탕으로 '성폭행 방지와 여성인권 회복'을 활동 목표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첫 여성인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했다. 올 3월 쯤에는 성폭행상담소를 개설, 감춰진 사례들을 발굴해 지속적인 인권보호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무직 적극참여...노동자회와 연대도 불완전 고용구조·사회환경 개선 주력

해 피해자와 그 가족, 진단서를 써준 동료의사까지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1년반 동안 수사를 지연시키던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쪽을 구속시킴으로써 여성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피해자쪽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종교계·교육계 등 10개 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결성, 1년여 동안 법정투쟁 끝에 지난해 10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얻어

있는데 피해여성은 한사코 숨어살아야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성폭행 근절을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 부도덕은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승소를 확실한다는 손회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의 현실을 보는 눈이 뜨이고,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점이 큰 수확이라고 덧붙인다.

20여명의 여성회 주부반은 '참

88년 6월 여장 동창생 30여명이 모여 만든 '새날여성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무직여성반은 금융계를 빼고는 이른바 '1인 보따리 장사'의 비서겸 사환이 태반인 이 지역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무역도시라는 화려한 허울속에서 사무직 여성들이 저임금과 직장상사의 성폭행·인격 무시 등에 시달리다 자포자기 상태로 윤락가로 빠져드는 악



모임이 끝난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허기를 달래는 부산여성회원들 뒤로 부산의 왜색향락문화를 상징하듯 서면복천로의 가라오케불빛이 화려하다.

순환이 바로 이러한 사회환경과 고용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회원 모두가 지금은 인식하고 있다.

여성회는 앞으로 신발·고무업계 생산직 여성들을 주축으로 지난해 9월 창립된 '부산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실현·직장악아대책 등 여성권리를 하나씩 따낼 작정이다.

"여성회의 탄생은 항구도시의 개방성과 외풍을 경계한 보수성

이라는 이중 사슬에 묶여 있는 부산여성들이 잠을 깨기 시작했다는 상징입니다. 침묵이 길었던 만큼 잠재력도 굉장하다고 믿습니다."

10년전 서울에서 내려와 이곳에 뿌리를 내린 시인 강은교(46·동아대 교수)씨는 여성회의 공동회장으로서 부산여성의 미래를 이렇게 낙관한다.

〈부산=김경애 기자〉